

# 폴란드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2. 8.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11
IV. 국제신인도 .....	14
V. 종합의견 .....	17

## I. 일반개황

면적	312천km <sup>2</sup>	G D P	5,144 억 달러 (2011년)
인구	37.95 백만명 (2011년)	1 인 당 GDP	13,555 달러 (2011년)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Zloty(PLN)
대외정책	유로존 가입 추진	환율(달러당)	2.96 (2011년)

-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국가 가운데 최대의 경제권 및 인구 규모를 보유한 국가로서 헝가리, 체코 등과 함께 1996년 OECD, 1999년 NATO에 가입한 데 이어 2004년 5월에는 EU에 가입함.
- 정치적으로는 내각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 9월 총선에서 법과정의당(PiS)이 승리하였으나 2006년 11월 지방선거 이후 당시 제1야당인 시민강령당(PO)의 승리로 연정 결속력이 약화됨. 2007년 9월 연정붕괴와 조기총선 합의에 따라 실시된 조기총선(2007.10)에서 시민강령당이 승리(정권 교체)함으로써 농민당과 연정을 구성함. 2009년 6월 유럽의회 의원선거에서 시민강령당이 25석(전체의 44.4%)을 확보하여 집권여당이 압승하였고 2010년 7월 대선에서 시민강령당 소속의 코모로프스키 하원의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됨. 2011년 10월 총선에서는 집권당인 시민강령당이 득표율 39.18%로 승리하여 농민당과 재차 연정을 구성함.
- 2004년 EU 가입 이후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고, 친 EU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 EU 관계가 호전되고 있음. 2008년 하반기 이후 동유럽 경제권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으나 IMF의 예방적 차원의 금융지원 승인 등으로 국제신인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됨.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sup>f</sup>
경제성장률	5.1	1.6	3.9	4.4	2.6
재정수지 / GDP	-3.7	-7.4	-7.8	-5.2	-3.2
소비자물가상승률	4.2	3.5	2.5	4.3	3.8

자료: IMF 및 EIU.

#### □ 2012년 들어 경제성장세 둔화

- 폴란드 경제는 2005년 이전에는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경제체제가 전환되는 과정의 부작용으로 경제성장률이 5%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1992~2001년 평균 4.6% 성장), 2004년 5월 EU 가입 이후 서유럽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폴란드에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유로존의 경기호조로 수출이 증대하고 실질임금 상승에 따라 민간소비가 증가하면서 2006년 이후에는 연평균 6%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08년 하반기 이후 폴란드 경제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으나 주변 동유럽 국가 중에서는 타격을 비교적 덜 받았으며, 2009년에는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성장률(1.6%)을 기록함. 이는 낮은 대외 무역의존도, 민간부문의 채무상환부담 경감, 소득세 감면, EU 기금 수혜를 통한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등에 기인함.
- 2010년에는 전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여건 개선에 따른 내수 증가, 해외수요 회복으로 인한 제조업체의 생산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3.9%로 회복되었으며, 2011년에도 노동시장의 지속적 개선에 따른 내수 및 고용 증가, 외국인투자 유입 증대 등으로 4.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2년에는 유로존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둔화로 경제성장세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른 주요 유럽 국가들보다는 높은 2.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이후 재정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있으나, GDP 대비 -3% 이내로 억제되지 않은 상태
  - 폴란드의 2009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전년의 -3.7%에서 -7.4%로 크게 악화되었으며, 2010년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재정지출 억제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감면, 지방정부의 지출 증가 및 투자 확대, 공적채무 이자지급 증가 등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7.8%를 기록함.
  - 그러나 재정(지방정부) 지출 억제, 공기업 민영화 및 배당금 수입, 부가가치세율 인상(22%→23%), 경기회복에 따른 소득세 증가 등 재정수입 증가 등으로 2011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5.2% 수준으로 축소됨.
  - 폴란드 정부는 2012년까지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경제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 개혁 등 강력한 긴축정책 추진과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가 -3.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의 상승압박 완화

- 폴란드는 체제전환과정에 있었던 1992~2001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2%(IMF추정)를 기록할 정도로 과도한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물가관리에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나, 이후 물가상승률은 크게 진정됨.
- 2008~09년 동유럽 경제위기가 심화된 시기에 폴란드도 통화가치의 급락으로 수입 식료품과 연료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가 불안하였으나,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하반기 이후의 통화가치 회복, 경기침체로 인한 임금하락 등의 영향으로 3.5%를 기록함.
- 2010년에는 통화가치의 일시적 급락으로 수출이 호전되고 경제위기가 진정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5%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에는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급등, 간접세(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인상, 내수 증가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3%를 기록함.

- 2012년에는 즈워티화 약세와 국제유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세 둔화와 식료품 가격 안정화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3.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유럽 경제권에 편중된 무역 및 금융 구조가 다소 우려

- 1990년대 체제전환 이후 농업 및 제조업의 GDP 대비 생산비중이 크게 위축된 반면, 서비스업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전형적인 선진 시장경제 산업구조의 패턴을 형성하고 있음 (동유럽 최대 경제권).
- 농업부문은 체제전환 이후 정부의 농산물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타격을 받았고, 석탄, 철강 등의 중공업에 집중화된 폴란드 산업은 체제전환 과정에서 급진적인 사회변혁 없이 중공업 분야의 점진적인 구조조정으로 농업부문과 같은 타격을 받지 않았음.
- 폴란드의 교역패턴상 수입상대국은 상대적으로 다변화되어 있지만 수출은 EU 회원국에 집중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고 유럽 금융시스템과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EU 회원국의 경제상황 변화, 특히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폴란드 경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음(전염효과).
- 2011년 기준으로 수출상대국의 78%가 EU 국가들이고, 폴란드 은행 자산의 약 60%를 다른 유럽국가의 은행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IMF, Country Report, July 2012).

#### <주요 경제구조 지표>

- 산업별 GDP 대비 생산비중('11): 서비스업 63%, 제조업 33.6%, 농업 3.4%
- 주요 수출대상국('11): 독일(27.0%), 영국(6.6%), 체코(6.4%), 프랑스(6.3%)
- 주요 수입대상국('11): 독일(28.7%), 러시아(10.3%), 네덜란드(5.9%), 이탈리아(5.4%)

### 나. 성장 잠재력

□ EU 가입 이후 투자여건 개선이 경제성장 견인

- 2005년 이후 제조업, 광업 및 공공부문의 생산증가율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수출호조 및 자본투자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특히, EU 가입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되고 경제성장이 활력을 되찾으면서 기계, 설비 등 자본재 산업의 생산증가율이 현저한 상승추세를 보임.
- 2011년 10월 세계은행그룹 국제금융공사(IFC)가 발표한 기업경영여건(Doing Business) 순위에서 폴란드는 전체 평가대상국(183개국) 중 62위(전년 59위)로 60위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글로벌경쟁력지수 순위에서도 폴란드는 전년의 39위/139개국에서 41위/142개국으로 40위 내외를 유지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투자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주요 성장 잠재력 지표(OECD, '12.5)>

- 잠재 실질GDP 성장률: 3.3%(2012~17)
- 잠재 노동생산성 증가율: 3.0%(2012~17)

□ 2011년 FDI 유입실적은 2008년 수준을 회복한 상태

- 1990년대 후반부터 OECD(1996), NATO(1999) 가입과 더불어 공기업 민영화 등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1~03년 민주좌파연맹(SLD) 정권의 민영화 추진 지연 및 국제경제 환경 악화로 FDI 유입은 부진하였음.
- 폴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으로 2004년 EU 가입 이후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이 지속되었음. 2006~08년 폴란드에 대한 FDI 유입실적은 각각 196억 달러(전년 대비 90.4% 증가), 236억 달러(20.2%), 148억 달러(-37%)로 나타남.
- 2009~10년 FDI 유입실적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투자유인 감소 및 투자계획 축소 등으로 전년대비 12.8%, 31.5% 감소한 129억 달러, 8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이는 주요 교역상대국이자 직접투자국인 서유럽 경제권의 경기침체로 폴란드를 포함한 동유럽에 대한 투자유인이 크게 줄어든데다,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산업설비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고 기업경영실적이 악화된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하지만 2011년에는 미국, 중국, 인도 등이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전년 대비 70.9% 증가한 151억 달러의 FDI가 유입된 것으로 집계됨. 이는 서유럽 주요 시장으로의 용이한 접근성, 중동부 유럽국가 중 가장 큰 경제규모 및 내수시장, 저임금과 양질의 노동력 등의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다. 정책성과

##### □ 유로 2012 대회 개최로 인한 경기 활성화 및 인프라 투자 증가

- 유로 2012 대회 개최기간 동안 폴란드에는 총 65만2천명의 외국 축구팬들이 방문하여 총 8억 즈워티(2.6억 달러)를 지출하였으며, 음료 및 요식업 매출은 3억8천만 즈워티(1.7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됨.
- 폴란드는 대회 개최를 위한 도로, 경기장 건설 등에 '08~'12년간 854억 즈워티(약 198억 유로)를 투자하였으며, 이 중 교통인프라가 86%, 스포츠 인프라가 5%, 호텔과 기타 분야가 9%의 비중을 각각 차지함.
  - 대규모 투자로 도로, 철도 등 낙후된 교통인프라를 개선할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경제의 생산성 및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관광 매력도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폴란드 체육관광부는 유로 2012 대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2020년까지 폴란드 GDP가 2009년 기준 1.4~2.7%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GDP 증가규모는 약 184억~366억 즈워티(42억 7천만~84억 9천만 유로, 2009년 절대치 기준)이며 2012년 GDP는 54억~95억 즈워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IMF의 신축적공여제도(FCL)를 통한 외환시장의 안정 도모

- 폴란드는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비교적 잘 극복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폴란드 정부의 확대통화정책 시행, 수출 경쟁력 상승, 비교적 건전한 금융부문, 경기부양조치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2009년 4월 15일에는 폴란드 정부가 17.5억 유로에 달하는 유로채권(2014년 만기, 독일 국채 2.306% 기준, 가산금리 363bp 적용) 발행에 성공하였는데, 이는 폴란드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국제신인도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 특히, IMF는 2009년 5월 신축적신용공여제도(FCL)를 통해 폴란드에 대해 1년간(2009.5~2010.5) 137억 SDR(205억 달러 상당)의 자금지원을 최초 승인한 이후 2010년 7월 FCL을 통해 6개월간(2010.7~2011.1) 동일 규모의 금융지원을 연장 지원하였고, 2011년 1월에는 2년간(2011.1~2013.1) 192억 SDR(300억 달러 상당)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승인함으로써 폴란드의 외환 시장 안정에 기여함.
- IMF의 FCL은 경제 펀더멘털이 비교적 양호한 국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2009년 3월 24일 도입한 제도로서 폴란드와 멕시코, 그리고 콜롬비아가 혜택을 받음.
- 2011년 초 IMF 실사단의 폴란드 거시경제현황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유럽 금융시스템과의 연계성 등 외부의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채무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함.

#### □ 2012년 들어 기준금리 소폭 인상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폴란드 통화당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총 250bp 인하)하여 기준금리는 2010년 말까지 3.5% 수준을 유지하였음. 그러나 2011년 들어 내수 증가, 국제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동년 1월 기준금리를 3.75%로 인상(2009년 8월 이후 17개월만의 인상)한 데 이어 4월, 5월, 6월에 각각 25bp씩 추가 인상하여 2011년 6월에는 4.5%를 형성하였음.
- 폴란드 통화당국은 목표치를 초과하는 인플레이션이 물가상승 기대를 유발할 수 있고 즈워티화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2년 5월 기준금리를 11개월만에 4.75%로 인상함. 하지만 경기가 점차 둔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6월과 7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여 2012년 7월 현재 4.75%를 유지하고 있음.

#### □ 통화가치는 2010년 하반기 이후 비교적 안정적 수준 유지

- 즈워티화가 2007년 이후 강세를 보이면서 2007년 중 미달러 대비 즈워티화 환율은 연평균 2.77을 기록하였고 2008년에는 2.41로 더욱 강세를 나타냈으나, 2008~09년 중 동유럽 경제위기로 인하여 즈워티화는 다시 약세(2009년 중 미달러 대비 즈워티화 환율: 연평균 3.12)를 나타낸 바 있음.



- 2010년 들어 동유럽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즈워티화 가치가 약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즈워티화 가치가 다시 강세(미달러 대비 즈워티화 환율: 연평균 3.02)를 나타내면서 교역조건이 악화됨. 2011년에는 하반기 이후 즈워티화가 약세를 보이던 가운데 미달러 대비 즈워티화 연평균 환율은 2.96을 기록했으며 2012년에도 3.0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즈워티화 가치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3. 대외거래

#### □ EU 가입 이후 교역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수출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상황

- 1991년 12월, EU와 폴란드간 EU 안정제휴협정(SAA) 체결 이후 폴란드의 EU 회원국과의 교역은 확대되기 시작함. 제조상품의 대외무역은 2004년 EU 가입 이전에 이미 무역통제가 철폐된 상태였으며, EU 회원국은 대 폴란드 무역패턴에서도 갑작스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
- 2010년 기준으로 폴란드의 총수출 규모는 2,057억 달러로 GDP의 44% 수준이었으며, 총수출증가율은 연간 20%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2009년에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21%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전년 대비 16% 수준으로 회복함. 2011년에도 하반기 즈워티화 약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강화로 총수출이 16%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주요 교역국의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수출증가율이 4%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경상수지 적자는 점진적 악화 추세

- 폴란드의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구조인데, 2000년대 들어 경상수지 적자는 1990년대에 비해 급속히 개선되는 추세에 있음. 2007~08년에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의 확대(소비 및 투자 수요 증대, 해외수요 위축, 통화 강세 및 임금 상승)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악화됨.
-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수출규모가 위축되었으나 경제활동 둔화로 인한 상품수입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17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350억 달러)에 비해 대폭 감소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008년의 -6.6%에서 -4.0%로 개선됨.

- 2010년에는 독일 등 주요 무역상대국의 해외수요가 늘어나 수출이 전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하였지만 민간소비 증가,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 등으로 수입이 늘어나 상품수지 적자가 전년에 비해 급증한 118억 달러를 기록함. 이로써 서비스수지 및 경상이전수지의 소폭 흑자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및 소득수지의 적자폭 확대로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4.7%(219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악화됨. 다만, 글로벌 유동성 경색현상이 완화되면서 포트폴리오 투자 등 외국인투자가 유입되어 자본수지가 개선된 점은 경상수지 적자 관리의 부담을 덜어줌.
- 2011년에는 즈위티화 약세로 인한 순수출 증가, 유로 2012 대회와 관련된 대규모 인프라 투자의 단계적 축소 등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4.3%(221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2012년에는 유로존으로의 수출 둔화, 소득수지 적자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도 -4.5%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은 2008년 말 593억 달러로 월평균 수입의 2.7개월분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2009년 4월 이후 폴란드의 외환금융시장 상황이 점진적으로 호전되면서 2009년 말 기준으로 외환보유액은 759억 달러로 월평균 수입의 4.6개월분 수준으로 개선됨. 2010년 말에는 외환보유액이 888억 달러로 월평균 수입의 4.6개월분을 기록하여 전년과 비슷하였으나, 2011년 말에는 926억 달러로 월평균 수입의 4.2개월분 수준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소폭 축소됨.

□ 외채상환부담은 점진적 완화 추세

- 폴란드의 연도별 외채(자본유입) 규모의 변동성이 최근 확대되고 있는데, 2008년 이전에는 외채구조가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외채구조가 악화됨.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1년과 2012년에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및 GDP 대비 총외채잔액, 그리고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이 동 기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외채상환부담은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임.

- 총외채잔액 / 총수출: 96.9%('08) → 141.2%('09) → 144.4%('10) → 133.1%('11) → 125.7%('12 전망치)

- 총외채잔액/GDP: 41.2%('08) → 58.3%('09) → 63.4%('10) → 61.9%('11)  
→ 58.9%('12 전망치)

-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111.2%('08) → 92.2%('09) → 86.2%('10) →  
77.9%('11) → 76.0%('12 전망치)

□ 정부채무는 관리 가능한 수준

○ 유럽 재정위기에서 나타난 경제위기국의 공통적인 문제는 재정수지 적자 악화뿐만 아니라 정부채무의 과중한 부담으로 경제운용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인데, 폴란드의 경우 정부채무의 GDP 대비 비중은 55% 수준으로 아직은 외채관리상의 문제점이 심각하지 않은 상태임.

- 정부채무/GDP: 50.9%('09) → 54.9%('10) → 55.4%('11) → 55.7%('12 전망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sup>f</sup>
경 상 수 지	-34,957	-17,155	-21,873	-22,128	-24,017
경 상 수 지 / G D P	-6.6	-4.0	-4.7	-4.3	-4.5
상 품 수 지	-30,659	-7,617	-11,810	-14,105	-13,867
수 출	178,427	142,085	165,709	193,899	201,240
수 입	209,086	149,702	177,519	208,004	215,107
외 환 보 유 액	59,306	75,923	88,822	92,647	93,367
총 외 채 잔 액	218,022	250,878	297,028	318,366	311,660
총 외 채 잔 액 / G D P	41.2	58.3	63.4	61.9	58.9
D S R	25.4	28.3	25.7	27.7	27.8

자료: IMF, EIU, IIF.

### Ⅲ. 정치·사회 동향

#### 1. 정치안정

##### □ 2011년 10월 총선에서 시민강령당(PO) 승리

- 2007년 10월 조기총선에 의해 집권한 시민강령당은 2009년 6월 8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제1야당인 법과정의당 15석(27.4%)보다 많은 25석(44.4%)을 차지하였으며, 지난 4년간 경제정책의 성과가 양호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 점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2011년 10월 9일 실시된 폴란드 하원(Sejm) 총선에서 중도우파 성향의 집권 여당인 시민강령당은 39%(207석)를 확보함으로써 득표율 30%로 157석에 그친 보수 성향의 법과정의당에 승리함. 2007~11년간 연정을 구성, 집권하였던 시민강령당과 농민당(8.4%, 28석)은 10월 총선 이후 재차 연정을 구성하여 총의석 460석 중 과반수인 235석을 확보함.

##### □ 공공재정 개혁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 긴장 발생 가능성

- 투스크 총리는 유로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재정 개혁안을 발표하고 정년 연장 등 연금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연정파트너인 농민당이 반대하여 연정내 불화가 가시화되면서 최악의 경우 연정 붕괴 및 이에 따른 조기총선 국면까지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함.
  - 정부는 2040년까지 정년을 67세로(현재 남자 65세, 여자 60세)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금개혁 법안을 2012년 4월 하원에 제출함.
- 농민당이 투스크 총리의 완강한 입장에 굴복하여 연금제도 개혁안에 찬성함으로써 연정내 불화는 일단락되었으나, 정부가 농민당의 주요 지지층인 농민에 대한 보조금 삭감 및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유사한 불화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2010년 4월 발생한 폴란드 대통령기 추락 사건에 대해 제1야당인 법과정의당(PiS)이 사고에 러시아가 개입되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투스크 총리가 이를 비판함에 따라 집권여당인 시민강령당과 법과정의당 사이에 정치적 긴장이 지속됨.

□ 2012년 이후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율은 하락세

- 집권여당인 시민강령당은 연금제도 개혁 등 각종 비인기성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2011년 10월 총선 당시 39.2%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던 시민강령당의 지지율은 지난 4월 30%를 기록하였으며, 유로 2012 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7월 초에는 32%로 상승하였으나 7월 말에는 다시 27%로 하락함.
- 농업 보조금 분배와 관련된 부정 의혹을 받아온 마렉 사비츠키(Marek Sawicki) 폴란드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이 지난 7월 사퇴하면서 정부의 청렴도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입은 상황임.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사회 치안상태, 매우 양호

- 경제성장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 재정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으로 복지혜택의 축소가 불가피한 점 등이 국민들의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정도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님.
- 2004년 4월 EU 가입 이후 110만명(인구의 3%)의 폴란드인이 해외에 이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최근 이민 및 해외취업 증가와 더불어 고용 증대(2006~07년 평균 4%)로 실업률이 2005년의 17.8%에서 2008년에는 7.1%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2009년 이후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폴란드 고용 사정도 다소 악화되어 실업률이 점진적인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실업률: 7.1%('08) → 8.2%('09) → 9.6%('10) → 9.7%('11) → 9.4%('12 전망치)
- 폴란드를 비롯하여 2004년 4월 EU에 신규 가입한 9개국(사이프러스 제외)이 2007년 12월 쉥겐조약에 가입함으로써 가입국간 국경이 개방되어 EU 회원국간 민간교류 및 사회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고 있음.

□ 소요사태 발발 가능성 낮아

- 폴란드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하여 테러 위협이 있었지만, 실제 폴란드 내에서의 테러 위협은 미미하며, 주변국가와의 직접적인 무력충돌 위험은 적음.

- 자국내 시위 및 시민 불복종운동은 합법적인 시민활동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는 1980년 8월에 창설된 중도좌익 성향의 자유연대노조(Solidarity trade union)와 같은 역사적 경험에서 유래됨.

### 3. 국제관계

#### □ EU 및 미국과의 외교관계 강화

- 폴란드는 2011년 하반기 EU 순회의장국을 역임했으며, EU내 자국의 영향력 확대와 유럽의 통합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폴란드는 EU 회원국의 재정규율을 강화하자는 독일의 입장에 우호적이지만, 은행연합 도입 등 EU가 제시한 범유럽 차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 러시아의 유럽지역 서진을 차단하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폴란드에 대해 미국은 긴밀한 군사·외교적 관계를 강화함.
  -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2011년 5월 폴란드를 방문하여 미국의 지속적인 폴란드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롬니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도 2012년 7월 폴란드를 방문하여 양국 간 유대관계를 강조함.

#### □ 주변국과의 관계개선 노력

- 미국 일변도의 안보정책에 비판적인 투스크 총리는 독일,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우호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함.
  - 과거사 문제로 악화되었던 독일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등 대 EU 경제협력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추진함.
  - 2010년 4월 폴란드 대통령기 사고 이후 소원해졌던 러시아와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2011년 들어 대통령기 사고원인 규명을 둘러싸고 갈등이 초래되었으며 북부 가스관(Nord Stream) 건설에 대해서도 양국이 이견을 보임.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 외채 상환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채무 리스케줄링 발생 가능성 낮아

- 폴란드 정부는 1991년, 1994년에 각각 파리클럽과 런던클럽을 통하여 채권단과 채무 리스케줄링에 합의함. 동 합의에 따라 당시 외채의 50%(순현재가치 기준) 정도가 탕감되고, 나머지는 파리클럽과 런던클럽에 각각 2014년, 2024년까지 채무상환이 연장되었음.
- 2005년에는 장기 유로채권 발행으로 파리클럽 대상 채무의 절반 정도를 조기상환(buy-back)하기 위하여 일부 채권국과 채무재조정 협상을 추진함으로써 2006~09년에 기일이 도래하는 정부채무의 만기 연장 등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게 완화됨.

#### □ 폴란드의 대 ECA 연체실적 미미

- 2010년 9월 말 기준으로 폴란드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공적수출신용 승인 및 부보 지원분(17억 3,840만 달러) 중에서 연체분은 2,110만 달러(전체의 1.2%)로 집계되어 OECD 국가위험 평가에 반영되는 ECA 거래 경험 평가분야는 0등급의 최고 수준으로 매우 양호함.

### 2. 국제시장평가

#### □ 주요 ECA 인수태도

- 미국 수은: 전액 인수 가능, 한도 적용 없음
- 영국 ECGD: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단기 전액 인수 가능

#### □ 국가신용등급은 상위 투자적격등급 유지

- OECD: 2등급('09.1) → 2등급('10.1) → 2등급('11.1) → 0등급('11.10)
- S&P: A-/Stable('07.3) → A-/Positive('08.2) → A-/Stable('08.10) → A-/Stable('12.8)





- 양국간 교역은 2002년부터 소폭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수출 9.5% 증가, 수입 56.1% 증가 이후 2004~06년에는 수출입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었음. 양국간 교역은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 2010년에는 전년에 비해 6.2%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유럽 재정 위기의 영향으로 다시 전년 대비 3.8% 감소함.

- 주요 수출품목('1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영상기기, 광학기기, 무선통신기기

- 주요 수입품목('11): 육류, 원동기 및 펌프, 타일 및 도자기제품, 자동차부품

□ 해외직접투자현황('12년 3월 말): 147건, 13.6억 달러(투자실행 누계 기준)

- 우리나라의 연도별 대 폴란드 직접투자 규모는 2008년 9,388만 달러에서 2009년에는 2,983만 달러로 전년 대비 68.2%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5,452만 달러로 전년 대비 82.8% 증가했으며 2011년에도 7,648만 달러로 전년 대비 4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이며, 제조업 중에서는 수송기계(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전자통신장비(부품)에 대한 투자가 주종을 차지하고 있음.

<표 4> 한·폴란드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대 폴란드	2009	2010	2011	주요품목
수 출	4,147	4,381	4,10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영상기기
수 입	234	274	376	육류, 원동기 및 펌프, 타일 및 도자기 제품
합 계	4,381	4,655	4,477	

자료: 한국무역협회.

## V. 종합의견

- 폴란드는 소비, 투자 증가 등으로 2011년 4.4% 성장했으며,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2012년에도 다른 주요 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2.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부가세 인상 등 재정개혁 추진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2011년 -5.2%에서 2012년 -3.2%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총수출증가율은 유로존 성장 둔화에 따라 2011년 16.3%에서 2012년 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1년 27.7%, 2012년 27.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반적으로 외채상환능력은 개선되는 추세임.
- 2011년 10월 실시된 하원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중도우파 성향의 시민강령당이 승리하여 농민당과 연정을 구성함. 2012년에는 연금제도 개혁 등을 둘러싸고 정당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향후 3년간 예정되어 있는 선거가 없어 확실한 의회 기반을 마련한 집권당이 재정개혁안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폴란드는 유로 2012 대회 개최에 따른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성장 잠재력이 확충되었으며, 재정개혁 추진에 따른 정부지출 축소로 단기적인 경기 둔화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 강화되어 국제신인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폴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도 불구하고 탄탄한 내수기반, 활발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IMF의 신축적공여제도(FCL)를 통한 금융지원 등으로 경제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긍정적임. 주요 국가신용도 평가기관의 폴란드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은 2009년 이후 조정되지 않고 상위 투자적격등급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함.

조사역 송호석 (☎02-3779-5709)  
E-mail: hssong@koreaexim.go.kr